



사자와 한여름 승부

4강 가는 최대 고비

■ KIA 금주의 프로야구



22~24일
<광주>



25~27일
<서울>

윤석민

◇프로야구 중간순위 (21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S K	56	30	0.651	0.0	1승
2	두산	51	35	0.593	5.0	2패
3	한화	51	43	0.543	9.0	3패
4	롯데	43	43	0.500	13.0	1패
5	삼성	45	48	0.484	14.5	5승
6	KIA	43	47	0.477	15.0	2승
7	우리	36	51	0.414	20.5	3패
8	L G	32	60	0.348	27.0	1승

4위를 향한 각축이 한여름 맹벌보다 뜨겁다.

이번 주 프로야구는 4위 자리를 놓고 KIA·롯데·삼성이 벌이는 숨막히는 추격전과 방어전으로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21일 현재 4·5·6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삼성·KIA는 2개임차 내에서 숨막힌 '4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22일 0.5개임차로 5·6위를 지키고 있는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사생결단의 3연전을 벌 이게 돼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팀은 에이스 윤석민과 배영수를 내세워 '자리 바꾸기'와 '순위 지키기'를 놓고 힘 겨루기에 나선다.

KIA에게는 삼성과의 경기가 4강 진입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0.5개임 박빙의 차이 때문에 매일 양팀의 순위가 뒤 바뀔 수 있는 데다, 부쩍 힘이 떨어진 4위 롯데가 SK·한화 상위권 팀과의 학제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삼성전 3연승을 독식할 경우 이번 주 5위는 물론 4위 진입까지 노려볼 수 있다.

삼성은 지난 16일 톰 선과 오버볼러 두 용병을 퇴출시킨 이후 5연승으로 기세가 올랐지만, KIA도 지난 17일 파죽지세의 두산 9연승을 저지하면서 2연승으로 상승세다.

7승4패로 시즌 상대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KIA는 삼성전 짹쓸이를 위해 에이스 윤석민·삼성 킬리'이범석을 원투펀치로 가동한다. 지난달 15일 한국 무대 데뷔 이후 승리투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디아즈는 삼성을 첫 승제볼로 삼았다.

마무리 한기주도 팀 승리 지키기에 나선다. 삼성은 지

롯데·삼성과 숨막히는 4위 다툼

삼성 3연전 독식하면 4위도 가능

오늘 윤석민·한기주 'V합작' 기대

난 주말 2연전에서 한화에 각각 8회와 9회 역전극을 펼치며 뒷심을 과시했지만, 한기주도 지난 주 두산과의 두 경기에서 모두 1점차 승부를 지켜내며 21세이브째를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10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56을 기록하며 시즌 평균자책점도 1.76까지 내려놓았다.

한층 무게감이 더해진 KIA 타선은 마운드 지원에 나선다. 질정의 타격감으로 클린업 트리오 자리에 복귀한 해결사 이제주는 지난 19일 88일 만에 홈런 공장을 재개동한 최희섭과 장타타선을 이끈다.

소총부대는 노장 이종범이 이끌고 있다. 이종범은 슬립프가 길어지고 있는 톱 타자 이용규를 대신해 지난 16일부터 1번 자리를 맡아 4경기에서 타율 0.563을 기록하며 노장의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

KIA는 삼성 흠 3연전에 이어 25일부터는 서울 목동야구장으로 건너가 우리 하이어로즈와의 원정 3연전을 치른다. 롯데와 삼성은 각각 3위 한화, 2위 두산과의 혈전을 벌 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기주

또 '세리 키드'… 오지영 첫 정상 올랐다

대만 청야니와 연장 접전 끝 우승

한희원 4위·배경은 7위·김초롱 9위

LPGA 스테이트팜 클래식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이 '메이저 퀸' 청야니(대만)를 꺾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오지영은 21일(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팬더 크리크 골프장(파72·6천608야드)에서 열린 스테이트팜 클래식 마지막날 한때 2타차 선두를 달리다 18언더파 270타로 동타를 허용한 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파를 치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오지영은 연장전에서 두번째 샷이 그린을 지나쳐 가장자리 러프로 굴러 갔지만 절묘한 침샷으로 홀 옆 한뼘 거리에 불인 뒤 가볍게 파퍼트를 성공시켰다.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을 제패하며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오른 청야니는 4라운드 마지막홀과 연장전에서 잇따라 보기 끊어내 준우승에 그쳤다.

2006년 12월 월리파워스쿨을 통해 2007년 LPGA 투어 부대에 데뷔한 오지영은 대회 초반에는 선두권에 들었다가 막판에 힘을 내지 못해 뒷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후반으로 갈 수록 실력을 발휘해 역전승을 일궈내면서 키나운 자신감을 얻었고 적지 않은 우승 상금 25만5천달러를 받았다.

청야니와 신인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나연(21·SIK텔레콤)도 마지막날 4타를 줄이는 등 나흘내내 60대 타수를 적어내며 17언더파 271타를 쳤지만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하고 3



오지영이 2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벌어진 LPGA 스테이트팜 클래식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뒤 브루스 캠리스 트로피에 따른 샴페인을 마시고 있다.

위에 만족해야 했다.

전날 대회 최저스코어인 11언더파 61타를 쳤던 한희원(30·월리파워스)은 1타를 줄이는데 그쳐 공동 4위(16언더

파 272타)에 올랐고 배경은(22·CJ)이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7위, 재미교포 김초롱(23)이 14언더파 274타로 공동 9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올림픽 타격 감 잡았어"



이승엽 이틀만에 홈런포

골든 이글스와 2군경기서

1루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 7회 2점포를 러뜨리는 등 3타수2안타 3타점으로 7-0 완승에 힘을 보탰다.

그는 19일 세이부 2군과 경기에서는 쉬 망지에의 공을 밟아쳐 좌측펜스를 넘어가는 3점포를 작렬시키는 등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합류를 결정한 지난 14일 이후 집 중력이 부쩍 늘었다.

2군 타격 성적도 타율 0.321(112타수36안타)에 홈런 6개 20타점으로 서서히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승엽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올림픽에서 그를 경계하는 일본 언론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전문지 '닉스포스' 인터뷰판은 지난 18일 '이승엽이 올림픽에 나선다면 일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마쓰카다 이스케(보스턴)로부터 결승타를 때려낸 일본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탱크' 쿼드러플 보기

최경주 막판 난조 16위로 '뚝'

아일랜드 해링턴 대회 2연패

PGA 브리티시오픈 최종



승을 이 대회에서 이뤄냈던 해링턴은 대회 2연패의 감격을 누렸다.

1언더파 69타를 친 이안 폴러(잉글랜드)가 4타 뒤진 7오버파 287타로 준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최고령 우승을 차지했던 53세의 노장 노면은 7타를 잊었으나 공동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18번홀(파4)에서 4타나 잃은 쿼드러플보기 15번홀까지 버디없이 7타를 잃는 탓에 우승 경쟁에서는 탈락했지만 16번(파4), 17번홀(파5) 연속 버디를 뽑아내 공동4위까지 올라섰던 최경주는 마지막 홀에서 티샷이 덤불 속에 빠지는 바람에 8타만에 홀아웃하며 한개번에 4타를 더 치는 바람에 '톱10' 입상마저 놓치고 말았다.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은 1언더파 69타를 때려 함께 3오버파 283타로 공동 16위에 그쳤다.

2라운드 선두에 이어 3라운드에서 선두에 2타차 7오버파 287타로 준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최고령 우승을 차지했던 53세의 노장 노면은 7타를 잊었으나 공동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2라운드 선두에 이어 3라운드에서 선두에 2타차 2위를 달려 사상 첫 한국 선수 메이저 우승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최경주는 초반부터 그린 플레이가 끌렸을 때마다 힘겨운 경기를 펼쳐야 했다.

/최재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메이저 우승 더 가까워지고 있다"

최경주 인터뷰

"급급은 아니라도 메이저 대회 우승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21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제137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에서 한때 1위로 '한국선수 첫 메이저 우승'을 향해 다가갔던 최경주는 공동 16위로 경기를 아쉽게 마감했다. 최경주는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2003년 마스터스 3위가 최고 성적이었고, 브리티시오픈은 지난해 공동 8위에 오른 것이 가장 뛰어난 성과다.

- 경기를 마친 소감은.

▲ 3라운드에서 퍼팅 감각을 잃었는데 회복을 못했다. 초반 6, 7개 짧은 거리의 퍼트를 계속 놓친 것이 문제였다. 마지막

홀은 정말 그렇게 바람이 선 줄 모르고 살 수했다. 그러나 삶은 살아 있고 퍼팅감각은 금세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 최근 15파운드 정도 체중을 감량해 리듬이 개진 것 같다. 그게 영향을 주고 경기력 부진을 초래한 것 같다. 하지만 지방이 빠진 자리에 균형이 차면서 몸이 예전보다 강해지고, 스피드도 나아졌다. 한 번쯤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 앞으로 계획은.

▲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5~6년은 활 씬 더 잘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좀 더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게임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희망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